기획의도

한국식 정통 꼬미디의 진수
'시집가는 날'

연극 〈시집가는 날〉(맹진사댁 경사)은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도내의 역량있는 문화예술단체(극단 현장)와 협업하여 경남의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5문예회관레퍼토리제작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꼬미디 극단인 수레무대의 김태용 연출가를 초빙하여 (사)극단 현장이 선보이는 연극 〈시집가는 날은〉 기존 권선징악의 결말을 넘어선 새로운 해석과 구조, 정확한 리듬과 템포로 짜여진 배우들의 입체적인 움직임, 기발한 상상을 가미한 무대 구성 등으로 그 동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연극적 판타지(Fantasy)의 세계로 관객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한국식 정통 꼬미디의 진수를 느끼게 할 연극〈시집가는 날〉에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창녕문화예술회관 PM 7:00
12.08(Tue)

하동문화예술회관 PM 6:30
12.10(Thu)

통영국제음악당 소극장 PM 7:30
12.15(Tue)

연출의도

극단 수레무대 대표
김태용

〈시집가는 날(원작 : 맹진사댁 경사)〉은 1944년 초연 이후 무수히 무대에 올렸던 대한민국 대표 희곡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선 주요한 맹점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올드한 주제다. 특히 대가집 자제 미언과 미천한 종년 입분과의 결혼은 TV 드라마에서 종종 접하는 멜로의 억지 결말과 다르지 않다.

많은 연출가들이 고민해왔던 질문이 몇 있다. 과연 미언은 입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가? 도라지골 김판서가 정녕 김명정의 말대로 입분과의 결혼을 인정했을까? 조선 말기에 첩도 아닌 정실로 종년을 며느리로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나 미언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단지 고운 맘씨라니?

2015년에 제작될 〈시집가는 날〉 역시 이 문제로 적잖은 고충을 겪을 게 뻔하다. 해석연출가로서 가능한 한 흐름과 맥은 그대로 두고 권선징악의 결말을 해체하는데 그저 중점을 두고 싶다.

주제가 달라질 것이다. 맘씨고운 입분의 승리가 아니라 민초들의 상징인 입분과 삼돌이의 사랑이야기다. 대사 한토시도 안 바꾸고 그네들의 사랑이야기로 결말짓는 게 이번 작업의 목표다.

조선말기라는 한정된 시공간보다는 할머니의 옛날이야기 같은 양식을 차용하여 먼 옛날, 파란대나무가 울창한 한 마을에 사는 삼돌이라는 종놈과 입분이라는 종년의 사랑이야기를 다룬다는 전략이다. 일명 청죽골로 칭하고 도라지골은 오죽골(검은 대나무 마을)로 바뀐다.

주제를 단순히 민초들의 사랑이야기로 잡기에는 무게가 안 느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갑과 을의 문제가 한참 드러나는 시기이니 만큼 갑과 을의 행복을 비교해주고 싶다. 물질적인 행복이 과연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격식에 매이지 않는 적나라한 감정표현과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방귀를 뀔 수 있는 민초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은 아닐까?

작가의 의도 깊숙이 '을'들의 자유롭고 진솔한 삶들이 풍요롭게 펼쳐지기에 '격식이나 체면에 매이지 않고 사는 민초들의 자유로운 삶과 솔직한 사랑이야기' 정도로 초점을 맞추려 한다. 어차피 이 작품에서도 양반은 풍자의 대상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시놉시스

파란 대나무가 울창한 청죽골의 맹진사댁에는
삼돌이와 입분이라는 종놈 종년이 있었다.
맹진사댁의 여식 갑분이의 혼인이 성사된 어느날.
김명정이라는 오죽골의 나그네가 나타나
갑분이의 신랑이 절뚝발이라는 소문을 내고
갑분 대신 입분을 시집보내려는 맹진사의 계략과
입분을 지키려는 삼돌이.
그들의 이야기는...

헌데 결혼 당일날 나타난 신랑 미언은 잘생기고 건강한 미소년이다. 부랴부랴 숙부댁에 보낸 갑분을 데려오려 하지만 맹노인의 불같은 성화로 식은 서둘러 치러지고 만다.
신방에 든 미언과 입분의 모습을 멀찍이 서서 쳐다보던 삼돌은 대나무신령에게 한탄이라도 할 심사로 사당으로 드는데, 입분이가 잠을 자고 있다. "삼돌아" 잠에서 깬 입분을 힘껏 껴안는다. 그 때 나그네 한명이 나타난다. 진짜 김명정이다. 삼돌은 그제서야 깨닫는다. 이 시점이 닷새 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연극
시집가는 날

2015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